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II)

박 여 범
용북중학교 시인
문학박사 · 문학평론가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

가장 쉬운 것은
눈을 뜨고 감는 그것이 아니다.
생각해보면,
눈을 뜨고 감기도 쉽지만은 않다
한숨 덩어리와 달콤하지만은
않지만
빌딩처럼 무거운 오늘의 삶에
가장 쉬운 결정 하나가 어렵게
만든다.
 가장 쉬운 것은 세상을 등지고
자연에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모 방송국이 자랑하는 그 많은
치솟는 세월 따라 흘러가다가
반도의 곳곳에서 스치는 인연
자연인은
가장 쉽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루, 아무 걱정 없이
삼시 세끼 밥도 걷다 보면
다 눈에 들어온다.
한 마디로 천국이다.
사오십대 시청자가 뽑은
최고의 채널
자연의 본향에 서 있다.
자연에서 거닐며 눈만 뜨면
모든 것은 자연에서 구할 수 있고
구하면, 다 먹거리로 변신하고
바로 요리가 된다.
가장 쉬운 것 같은 자연인,
그에게도
그늘이 어두컴컴 내리면
눈물 한 방울 허전함과
그리움이 쌓여
가족의 부재를 이겨내기 어렵다
가장 어렵다, 그것이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누구나 그러하듯이
가장 어려운 것은
성공한 리더도 그 무엇도 아니다.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당신 옆에서, 너무도 당연시되는
현실이 두려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부끄러움에
에라 모르겠다, 앞다투어
피어나는
붉고 푸른 꽃의 전쟁이지 않을까?

-박여범,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전문-

위의 시처럼, 오직, 짧은 인생 그래프에 가장 쉬운 내 마음 하나를 보석으로 채우지 못한 삭막한 자아만이 덩그러니 나뒹군다. 노트 한 장 펼쳐, 지평선 너머로 고개를 숨기는 붉은 홍시를 멍하니 바라다보며. 허접고 아쉬운 오늘 하루를 적어 내려간다.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이 상처가 되기 쉽다. 막 한마디가 사람의 기분을 결정할 정도로 가장 쉬운 것 같은 것이 가장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상황에 직면하면 너나 나나 다 지난 기억은 잊어버리고 후회의 냉며 터지르 나뒹군다.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그 생채기에 다시 소독약을 발라야 하는 이찌 보면,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이미 벌어진 상황을 무시하기도 쉽지 않다. 정신적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상처가 아물도록 소독하고 적당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 매에 장사 없다.

기분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운명'이라는 두 글자라면, 깨어 부수고 받아들이면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 하지 않겠는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결국은 혼자다. 혼자 살아남아야 하는 혹독한 삶이다. 가장 어려운 삶의 여행에 동반자가 있다면 손을 잡고 보듬으며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자.

이상과 같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다. 친구가 보내 준 카톡이 정겹고 익숙하다. '살아갈 것인가, 살아낼 것인가, 살아남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처럼, 가장 쉬우면서도 어렵지만, 가치 있는 일이라면 무모할 정도로 도전하는 맨주먹정신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이것이 바로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최선이지 않을까?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바이든 미 대통령 "중국과의 관계, 미국 이익 옹호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28일(현지시간) 워싱턴의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코로나19 사망자 매장하며 슬퍼하는 유가족

28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이나우마 공동묘지에서 한 유가족이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숨진 가족을 매장하면서 슬퍼하고 있다. 브라질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452만3807명, 사망자는 39만8343명이다.

사설

북한 도시 청년들의 농촌행

최근 농촌으로 향하는 북한 청년들이 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도시 청년들이 왜 농촌으로 향하는 지 주목된다. 북한의 젊은 층도 농촌보다는 도시 생활을 선호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반대로 대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이주한 청년들 소식이 최근 전해졌다. 대대적인 환송 행사까지 열리고 있다. 북한에서 꽃을 든 청년들이 시민의 환송을 받으며 힘차게 발걸음을 옮기는 뉴스가 나왔다.

이들은 모두 농촌에서 일하겠다고 지원한 남포특별시 청년들이다. 140명의 청년들은 남포시 주변 농장 스무 곳으로 떠나게 됐다. 출발 전 모임에선 꼭 다수확 농민이 되겠다는 결의를 내보이기도 했다.

북한의 농촌은 지난해 태풍 피해로 전국적으로 벼 재배 면적이 1만6천 헥타르나 감소했다.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일손 부족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을 만회하기 위해 체력과 기술을 갖춘 청년을 농촌으로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농업 생산 확대를 강조하고 청년 후계자를 양성하라고 지시했다.

북한 당국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농업 기계화 사업에도 고등교육을 이수한 대학 졸업생들이 대거 투입되고 있다.

당국은 어렵고 힘든 부문에 자진해 달려 나가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며 사회주의 농촌 건설 구상에 청년들이 동참하라고 독려했다.

농번기를 앞두고 농업 생산력 제고에 박차를 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청년들은 '당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해 자원해 농촌으로 투입된 일꾼들로 보인다.

청년 세대가 이 같은 사업에 나서고 있음을 강조해 분위기를 고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경제 현장에서 이뤄지는 선전선동 활동을 전투의 최전선에 비유한다.

'농촌에 헌신'을 결정한 북한의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사회 분위기를 띄우는 것이다.

필수노동자 챌린지와 오평근 도의원

전북도의회 오평근 의원(전주2)이 최근 〈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 챌린지에 동참하면서 눈길을 모았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멈춰도 절대로 멈출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필수노동자'들이다.

필수노동자란 국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다.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등 영역의 대면 노동자를 말한다.

일선에서 코로나와 싸우는 의료계 종사자와 돌봄 종사자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기본적인 조건이나 복지도 충족되지 못한 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대면이 힘든 상황 때문에 대한민국의 택배 물량은 201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배달원들은 명절이 아닌 평시에도 하루 300개 남짓한 물량을 소화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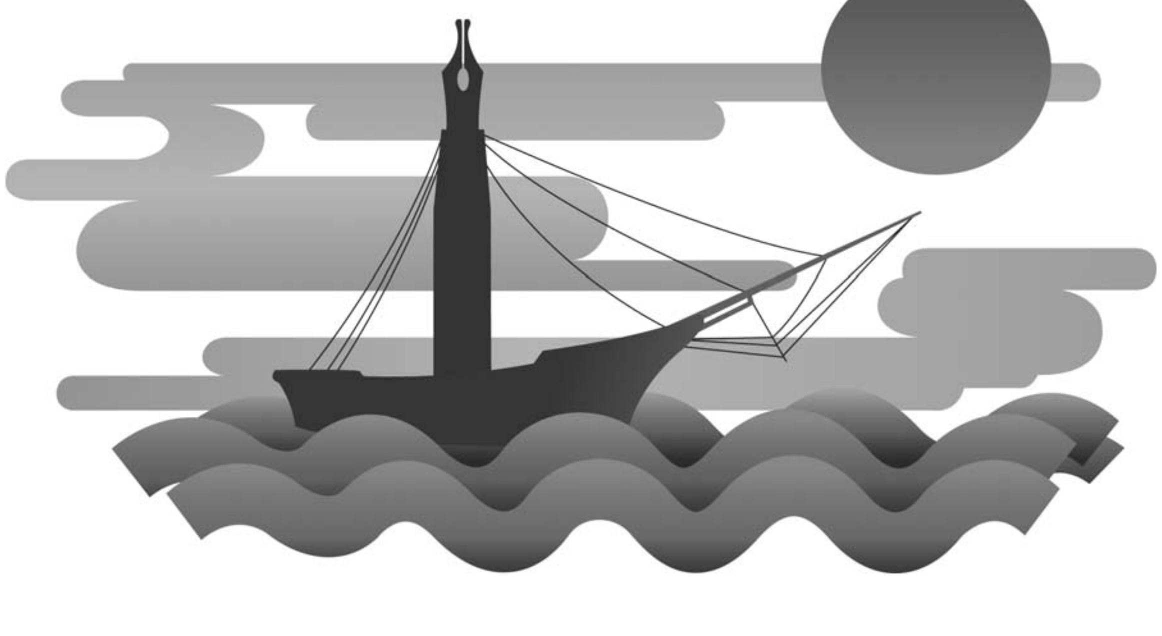
과도한 노동에 노출된 배달원이 일하던 도중 쓰러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 큰 폭으로 늘어난 생활 쓰레기 처리 문제로 환경 미화원들의 노동 강도도 심각하다.

필수노동자들은 감염병의 위험 속에서도 대면 노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위험수당과 교통비 등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1년 뒤 재계약을 못 할 수도 있다는 걱정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항의하지 못한 채 일을 하고 있다. 필수노동자는 말 그대로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노동하는, 사회의 중심축과 같은 사람들이다.

팬데믹 사태로 필수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노동 환경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들에 대한 한시적인 대책으로는 부족하다. 이들이 쓰러지지 않고,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노동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